



이스라엘 업데이트

©아셰르 인트레이터, 2008 년 3 월 16 일

"하나님, 미국을 저주하소서!"

이스라엘 언론은 바락 오바마 *Barak Obama*가 출석하고 있는 트리니티 연합 그리스도 교회의 제러마이아 라이트 *Jeremiah Wright*에 대해 간단히 다루며, 그가 설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국을 저주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미국을 저주하시기를!”이라고 반복적으로 말하는 장면을 내보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그와 오바마의 정치적 의도 때문이 아니고, “해방 신학”의 문제를 다루려는 것도 아니요 오바마 개인의 신앙(공개적으로 그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고 있지만)에 대한 것도 아닙니다. 전 기도의 관점에서 접근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을 위해 기도해야 할 필요성 말입니다.

주전 6 세기, 유대 민족은 유수되어 살고 있던 땅 바벨(이라크)을 위해 기도하도록 명령 받았습니다(렘 29).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권세 잡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부르심 받았습니다(딤후 2).

예레미야 29:7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께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자신들을 학대했다는 생각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을 위해 기도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바벨은 세계의 지도국이었습니다. 현재 미국이 세계를 이끌고 있는 것처럼요. 그들에겐 역설적으로 보였겠지만, 바벨의 안녕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결국 자신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미국의 평안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 유대인, 전세계 억압 받는 이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 내에 사는 사람들조차 미국에 대해 분노의 감정을 갖긴 쉽습니다. 연예 사업은 성적 부도덕과 방탕함을 만연시켰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많은 경우 너무 많이 먹어 똥똥하고, 편안을 숭배하는 자기애에 빠진 이들입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 세상에 미국이 없어지길 원하십니까?

미국은 이슬람 지하드에 분명한 입지를 취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또한 UN 에서 이스라엘을 꾸준히 지지해 온 유일한 나라입니다. 현재까지 성경적이고, 신앙에 관련된 서적을 가장 많이 펴내는 나라입니다. 선거, 재판, 입법의 형태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나라입니다. (지난 금요일, 이란에서 열린 선거에서는 아흐마디네자드 정권에 반대하여 개혁을 촉구하는 모든 후보들이 투표 이전에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미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기본권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6 개월간, 미국 달러는 국제 시장에서 25% 가량 추락했습니다. 기독 자선 단체 대부분(복음적 선교 단체 포함)은 재정을 달러로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올해 그들의 사역 재정 지원이 실상 25%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예슈아를 참으로 믿는 성도들은 결코 라이트 목사에게 대해 그런 험한 소리를 할 리가 없겠지만, 미국에 대한 복수와 분노의 영은 많은 이들에게 교묘히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과 관련하여 “기도”나 “예언”이니 하는 수많은 사역들은 결국 하나님의 보좌 앞에 불평하고 고소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자기도 모르게 국가와 지도층에 저주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저 기도는 중립적이어야 한답시고, 미국을 위한 기도를 아예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 미국을 위한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믿습니다. 다음 사항을 고려해 보십시오.

1. **도덕적 회개** - 미국 전역에 부흥의 폭풍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돌아서게 하소서. 정부와 기업에 정직함을 주시고, 이세벨의 반역과 음욕의 영을 파하게 하시며,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가 가득하게 하소서.
2. **정치** - 대통령과 상-하원 의원, 주지사, 시장 및 재판자들이 뽑히는 올 11 월,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선출되도록 하시고 부시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해를 효율적으로 보내게 하소서.
3. **경제** - 달러화가 안정되고 국제 시장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며, 모든 자선-선교 단체의 필요를 채워주소서. 하나님의 남녀 종들이 일어나 기업계에서 번영케 하소서.
4. **군사** - 이라크에 확실한 승리가 있게 하시고, 국제 테러 세력들이 부서져 흩어지게 하시며 이라크 국민들로 연합된 정부가 안정되고 의롭게 세워져 미군들이 귀환할 수 있게 하소서. (저는 개인적으로 빈 라덴이 미국 선거 약 60 일 전에 잡히거나 사살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5. **이스라엘** - 이 마지막 때에 미국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의 충직한 친구가 되게 하소서(이스라엘 신문들은 라이트 목사의 미국에 대한 “저주”가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것과 연관 있다고 재빨리 지목했습니다.)

주: 부시 대통령 및 세계 지도자들은 5 월 11 일,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60 주년을 기념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은 “예루살렘, 그 부르심(더 콜 **The Call**)” 집회가 있는 날이며, 세계 기도의 날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희가 예루살렘 컨벤션 센터의 강당에서 먼저 집회를 갖고, 그 직후에 거기서 그들이 모일 것입니다.) 이 거룩한 성회에 참여할 계획을 하시거나, 최소한 하루를 금식하며 저희와 함께 기도하시는 건 어떨까요?

번역-고병현

Shaul Syunghyun Go